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울산(좌천~덕하) 구간 공사 본격 추진

건설본부(본부장 이종춘)는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구간(72.1km) 중 미발주된 울산 구간(좌천~덕하, 27.7km)을 오는 11월 말에 착공하여 본격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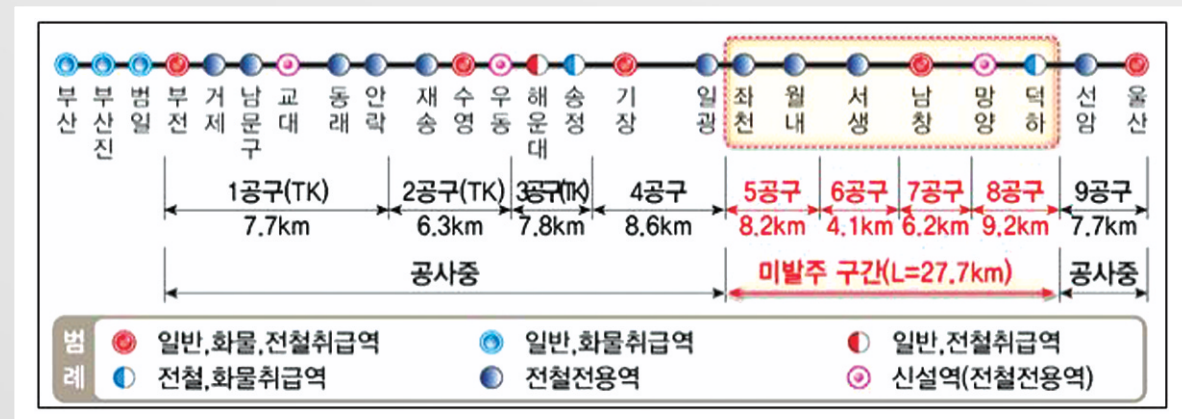
1935년 12월 단선으로 개통된 동해남부선은 지역 경제발전에 따른 철도의 수송효율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3년 부산시(부전~일광)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해 왔다.

울산시구간(일광~서생)은 지자체에서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일반철도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11년 본 사업구간이 일반철도로 전환되어 기획재정부

등에 총사업비 증액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으로 공사를 발주한다.

이번에 발주하는 울산구간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울산간 열차운행시간도 현재 80분에서 완행은 70분, 급행은 약45분 정도로 크게 단축되고, 열차운행능력도 1일 왕복 38회에서 138회로, 시간당 열차투입횟수가 1회에서 6회까지 늘어난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부전~마산복선전철, 동해중부선(포항~삼척) 및 중앙선(청량리~영천)과 연계되어 철도교통을 이용한 전국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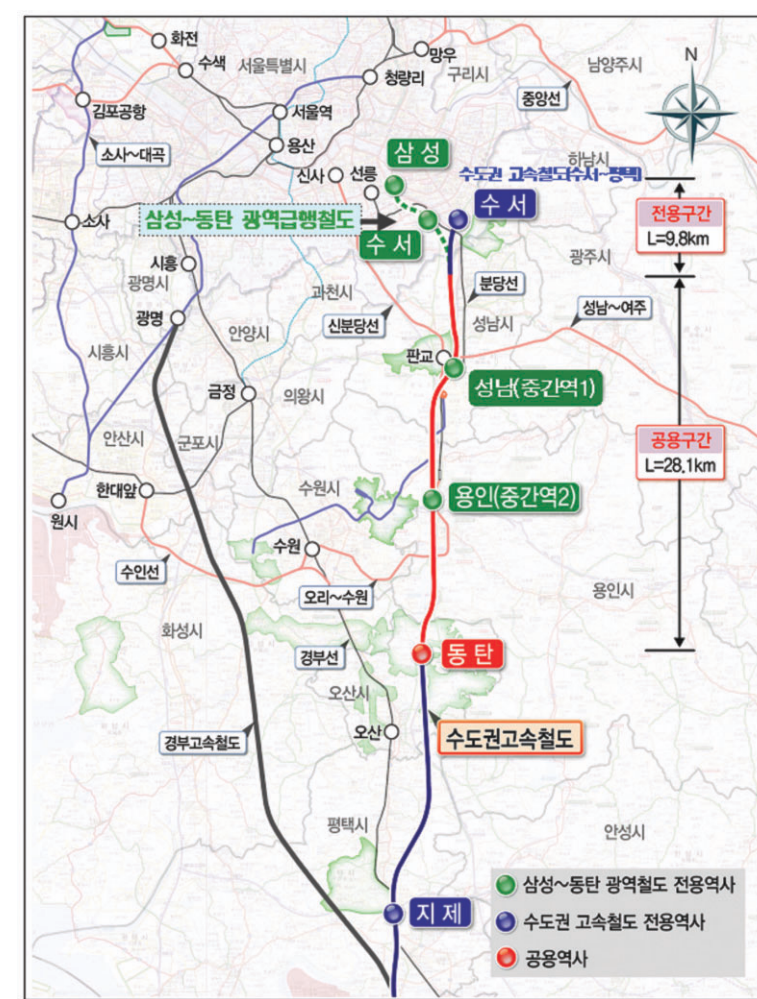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 노선약도

성남시 금곡동에 신분당선 미금역 신설 추진

건설본부(본부장 이종춘)는 9월 5일 성남시, 경기철도주식회사 간 '미금역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신분당선 미금역은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 미금교차로 지하에 설치(분당선 미금역 하부)되는 기존 분당선과의 환승역으로, 2017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신설 미금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1224억원은 성남시에서 918억원, 경기철도주식회사가 306억원을 분담하고, 공단은 사업관리를 시행하며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시공 및 운영한다.

본부 관계자는 "미금역이 개통되면 강남까지는 18분, 광고 신도시까지는 12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시민과 용인, 수원 등 지역주민들이 철도 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경기 남부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300km/h 운영 정상화

- 2011년 선로전환기 장애 발생 이후 2년 여의 노력 결실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 신호통신처는 9월 12일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정상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선로전환기 총 46개소 중 현재 고정 조치 중인 3개소를 제외한 43개소를 철도공사에 인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나머지 3개소 중 1개소는 9월 13일 국토교통부, 공단·공사 합동점검 후 인계하고 나머지 2개소는 추석 대 수송 이후에 인계하여 9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호통신처 전 직원이 2011년 6월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장애발생 이후 2년여 동안 주말 및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장애 부품 교체, 제품 개선, 전문가와 적정성 검토, 문제점 발굴 및 조치 등을 수행하여 장애발생 빈도가 '11년 월 15회에서 '13년 월 3회(경부1단계 월 2.5회)로 줄면서 유지보수 수준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향후 본부는 보완된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공하고, '13년 11월까지 전 개소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활동을 지속 시행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등 건설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기술본부 서정민 기자>

기사시평

주요뉴스 ('13.9.9~'13.9.22)

- 국가건설기준센터 문 열었다 (충청투데이04)
- 권익위 제천서 현장 조정 (충청투데이16)
- "노선 변경 곤란" vs "공사 강력 저지" (강원일보19)
- "KTX 포항역사 개통 준비 철저히 해야" (경북일보07)
- 대륙철도·북극항로 '꿈' 실현될까... 北 태도 변수 (서울신문06)
- 현대로템, 유라시아 꿈 이루나 (매일경제16)
- 토목예산 추조 샌다 (한국일보01)
- 제 살 깎는 최저낙찰제... '공공입찰' 수술 시급 (경기일보08)
- 하루 5시간만 일하는 공무원 일자리 나온다 (동아일보11)
- 채용 확 줄인 '紳의 직장' (매일경제12)
- '동탄~삼성 광역철도' 연내 밑그림 (경인일보02)
- 부전역 KTX환승역 국비 건설 힘쓸다 (국제신문05)
-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목소리' (경인일보03)
- 대구역 사고 낸 3명 구속영장 신청 (한겨레08)
- 삼척 스위치백 리프트 순환 (강원도민13)
- 현오석 부총리, 고속철 팔러 브라질 간다 (한국일보17)
- '철도시설공 건설현장' 달랠까 새누리 (경기일보04)
- 500억 이상 SOC사업 경관심의 의무화 (서울경제27)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고당 ~ 동탄구간 우선 건설 추진 (조선일보01)
- 송도 ~ 청량리, 금정~의정부 2개 노선은 잠정 보류 (조선일보08)
- 수서발 KTX 이용객 2배 이상 부풀려 (경향신문19)
- SOC예산 '잔디 깎기'... 정치권 압력에 '누더기 편성' 위험 (동아일보03)
- 철도노조 체불 재청신청 대건고등법원 기각 결정 (대전일보07)
- 호남고속鐵 입찰담당 의혹... 1330억 이득 챙긴 듯 (조선일보10)
- 원주~여주 복선鐵 내년 상반기 구체화 (강원도민02)
- "내년 해외 건설사업 40억~200억 달러 손실 우려" (조선일보B05)
- 공공기관 정보 원문 그대로 공개 (서울경제29)
- "공공부문 허리띠 조여 투자 늘려라" (파이낸셜01)
- 쪽방주인에 식사·생필품 기증 (중도일보23)
- 원주~강릉 철도 코레일이 운영 (강원일보02)
- 공공기관 우수조달 물품 계약확대 확대 (대구일보17)
- 철도건설 임금액해 해소 팔건어 (대전일보10)
- 철도공단 호남본부 '사랑 나눔' (광남일보12)
- "한국 SOC 지표 OECD 최하위 지출 줄이면 성장잠재력 하락" (국제신문02)
- 수출입銀에 공기업 주식 출자제한 완화 (매일경제11)
- 제114회 철도의 날 기념식 (대전일보16)
-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노인복지시설 위문 (강원도민23)
- 김용규-전희광씨 산업훈장 (동아일보24)

경 조 사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손명옥 사원 시무상
- 발 인 : 2013년 9월 11일
- 감사실 시설감사부 조용표 차장 모친상
- 발 인 : 2013년 9월 11일

기술본부,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그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을 맞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송편 및 전 등의 명절음식으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직원들은 소정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본부는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요리보조, 전반처리 및 배식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부는 향후에도 금식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뿐 아니라, 하반기 독거노인 반찬배달 및 연탄배달 등의 행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본부 김대희 기자>



연구원, 대전 관암사호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연구원(원장 최상영)은 9월 4일 대전의 관암사호복지관을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홀로 추석을 보내며 가족을 그리워할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해 무료급식 준비,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가정에 도시락과 생필품, 간식 등을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관암사호복지관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로변에 거주하는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아보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본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성금 전달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1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한국농아인협회를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정기수 총무부장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물론이며,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농아인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부는 2012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와 교류를 시작하여 지난 3월에는 컴퓨터를 기증하는 등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수도권본부 이지연 기자>



충청본부, 대전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전달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 4일 대전 동구청 복지정책과를 찾아 동구청 관내 철로변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상반기 공단 경영혁신 평가에서 충청본부 입상자들이 받은 상금으로, 추석명절에 철로변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데 흔쾌히 뜻을 같이했다.

앞으로도 노 본부장은 공공조직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동구청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철로변 불우 이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